



<그림 2> 시범마을사업의 변화(국토연구원, 2012)

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건설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도시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따라 차세대 도시 환경인 U-City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개념이 융·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U-Eco City 모델을 창출하였다.

국내 R&D 연구로 U-Eco City는 에너지수급, 탄소배출, 인프라노후화 등 도시가 당면한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T·정보통신분야, 생태환경, U-서비스 분야를 융·복합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(국토교통부, 2013). 세부내용 중 Eco-Space 녹색기술에서는 도시민 삶의 질 저하, 도시환경생태계 지속가능성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와 유비쿼터스 기술을 융합하였다. U-IT 기술과 환경생태기술을 융·복합한 U-Eco Space를 제안하였으며, U-Eco City 조성을 위한 U-기반 환경생태정보 구축, 환경생태용량 및 가치평가, 다차원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건설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였다.